

신혼여행서 혼전관계로 갈등 심해

제주 '여성의 전화' 조사 '순결 의심 밤새 추궁' 38%

가장 즐겁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야 할 신혼여행에서 '혼전 성관계' 문제로 심한 갈등을 겪는 신혼부부들이 많다는 통계가 나와 눈길을 끈다.

제주 '여성의 전화'(원장 박현수)가 88년 1월부터 올 9월20일까지 제주도를 찾은 신혼부부 가운데 전화상담을 한 2백82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성고민이 1백7명(37.9%)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특히 약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46명, 6개월~1년인 경우 38명 등으로 약혼기간이 짧을수록 성고민 상담이 많았다.

상담내용은 '여성의 혼전 성관계'로 인한 갈등이 대부분이다.

"처녀성을 의심하며 밤새도

록 남자관계를 추궁당했다."

"신랑이 '우리 서로 과거 이 성교제를 있는 대로 털어놓고, 이해·용서하며 새출발합시다' 라면서 먼저 자신의 혼전 성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중3 때 성교해당한 것을 말했더니 구타했다."

"결혼 전 남자친구한테서 전화가 걸려와 신랑에게 과거가 탄로날까봐 걱정이다. 신랑이 알게되면 이혼당할 것 같은데..."

24시간 상담전화를 받고 있는 원장 박현수 목사는 "밤늦게 울면서 전화하는 신혼여행 온 신부들이 의외로 많다"면서 "남녀간에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성에 대한 규범이 이들의 갈등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"고

말한다.

상담자는 여성이 2백47명(87.6%)으로 남성보다 훨씬 많았으며 남성들의 학력은 대졸(56%), 전문대졸·대중퇴(29.1%), 고졸(11.3%)순, 월수입은 30만~40만원(52.8%), 40만~50만원(22%) 순이었다.

성고민 상담 외에 혼수, 예물문제도 56건(19.9%)으로 나타났다으며, 애정문제 45건(16.0%), 성격차이 34건(12.1%), 구타 17건(6%), 문신·흉터 12건(4.3%) 등이었다.

제주 여성의 전화쪽은 "가을 결혼철을 맞아 상대방에 대해 이해 없는 결혼을 경계하고 결혼 전 충분히 상대를 파악하도록 하기 위해 이 자료를 발표한다"고 말했다.